

【특 집】

1937~1942년 『만선일보』 소재 ‘만주조선문학’ 저술

리하일라 G. 휴어드*

번역자: 백종륜**

┃ 차 례 ┃

- I. 서론
- II. 지식인 동원, 그리고 언어와 문학의 연결
- III. 만주 내의 문학사 서술과 그 미래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만주국시기 만주에서 조선어 글쓰기가 가졌던 위상과 기능에 관한 지적 담론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어 신문인 『만선일보』에 실렸던 여러 논설들을 살펴본다. 이 일차 문헌들은 만주국의 국민 문화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폭넓은 논의로 주로 특징지어지는, 만주국시기 5년간의 문학적 전성기(1937~1942)에 발표되었다. 조선인 지식인들이 이러한 논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일본과 무관한 자율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자 했던 그들의 욕망을 드러낸다. 또한 이후 일부 저술이 중국어로 번역되기도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중국인들에게도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신문 사설들은 문학과 지식의 생산을 통해 재만 조선인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또 다른 관점에서 『만선일보』 사설들은 조선인 지식인들이 만주국의 국민 형성(nation-building) 담론과 관련해 어떻게 자신들의 생산 가치를 이해했는지를 조명한다.

주제어: 만선일보, 만주조선문학, 만주국, 국민 형성, 조선인 지식인

* 몰타대학교 강사

**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I. 서론

만주 유일의 조선어 신문이었던 『만선일보』는 1940년 1월부터 “만주조선문학 건설신제의(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이하 “신제의”)라는 제목의 단기 기획연재를 통해 여러 논설들을 게재했다.¹⁾ 제목이 시사하듯 저자들은 정확히 무엇이 “만주조선문학”을 구성하는지를 정의하려 노력했다. 이후 기고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독자층을 향상시켜야 하는지, 또 만주조선문학의 성장을 위해 어떠한 전략이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기획연재는 두 달 동안 스무 호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열세 편의 논설이 실렸다(표 1 참조).²⁾ 하지만 기획연재가 종료된 뒤에도 이 주제에 관한 글들은 계속 발표되었고, 그중 하나는 중국어 잡지에 실리기도 했다(표 1 음영 표시 참조).

『만선일보』는 1931년 일본이 건설한 괴뢰국가 만주국이 산업생산에서 문화생산으로 전환하던 시기에 탄생했다. 1935년과 1936년 사이에 만주국홍보처는 많은 비밀본어 출판물을 폐간했으며, 이에 따라 『간도일보』와 『만몽일보』를 통합한 『만선일보』가 1937년 10월 21일에 창간되었다.³⁾ 만주의 만(滿)과 조선의 선(鮮)을 합친 이름의 『만선일보』는 결과적으로 만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조선어 사용 플랫폼이 되었다.

1)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영어로 먼저 출판되었으며, 영어권 독자를 위해 쓴 주석을 생략했음을 밝힌다.

Lehyla G. Heward, “Writing “Manchurian-Korean Literature” in the Mansön ilbo, 1937-1942,”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3 No.2,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20.

2) [역주] 제4회부터 “만주조선문학건설신제창”이라는 이름으로 표제를 바꾸었다. 『만선일보』 1940년 1월 25일자 조간신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날 김춘강이 쓴 제11회가 연재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작성한 표에는 제12회 김춘강, 「문학의 정신을 창정(創定)하고 요람을 만들어 놓자」(1940.01.26); 제13회 이광현, 「문학 개척의 설계도」(1940.01.27); 제14회 현경준, 「문필가의 대우부터」(1940.01.29); 제15-16회 신서야, 「만주조선문학의 성격과 특이성」(1940.01.30-31); 제20회 송지영, 「저류에 방황하는 정열」(1940.02.05); 제21회(완) 송지영, 「신수립의 지행병란(知行併難)」(1940.02.06)이 누락되어 있다.

3) 金長善, 『偽滿洲國時期朝鮮人文學與中國人文學比較研究(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 研究卷)』,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 58-60頁. 저자인 김장선은 『만주문학연구』(역락, 2009)의 저자로서, 『만주문학연구』의 일부가 위의 책에 번역·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각각의 논설 내용을 훑아보기에 앞서, 우선 내가 [만주조선문학의] '만주(*Manju*)'⁴⁾를 형용사 '만주의(*Manchurian*)'로 번역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논설의 저자들은 역사적으로 만주리아(*Manchuria*)라 불렀던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친연성(*affinity*)을 확실히 주장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선문학(朝鮮文學)'을 '만주(滿洲)'라는 수식어와 결합시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지역(과 그 영문명)의 복잡하게 뒤엉킨 역사는 반드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용례에 따르면 '만주'는 원래 만주족(*the Manchu people*)을 가리키는 민족명이었지만, 이후 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 되었다.⁵⁾ 이 명칭의 영어 형용사형[*Manchurian*]은 중국 동북부 지방 선주민들 가운데 하나와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만주조선문학(滿洲朝鮮文學)'이라는 표현은 논설의 저자들 또한 만주(*Manchuria*)의 영토 및 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만주'라는 어구는 그것의 제국적이고 다민족적인 과거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그 자체로 조선인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글쓰기를 스스로 만주조선문학으로 양식화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도전들을 명료하게 부각시킨다.

[표 1] 『만선일보』 소재 만주조선문학 논설

저자	국문/중문 제목	영문 제목	발표일
미상	만주조선문학 건설 신제의	A New Proposal to Establish Manchurian-Korean Literature	기획연재 서문
황건	만주조선인문학과 문학인의 신념	Manchurian-Korean People's Literature and the Beliefs of the Literati	1940.01.12.
황건	만주조선인문학의 특수성	The Particularities of Manchurian-Korean People's Literature	1940.01.13.
황건	만주조선인문학의	The Future Development Strategy of	1940.01.16.

4) [역주] 이하에서 저자가 "*Manju*"라고 표현하는 경우, 따옴표 안에 넣어 '만주'로 표기한다.

5) 초대 청나라 황제의 지원을 받은 예수회가 만들었던 지도들과 관련해 '만주'라는 용어가 중국어에서 유럽어로 다시 일본어를 거쳐 중국어로 진행되어 온 역사를 탐구한 작업은 다음을 참조. Mark C. Elliott, 2000,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 no. 3, pp.603-646.

	금후발전책	Manchurian-Korean People's Literature	
윤도혁	만주조선문학의 전통성과 특이성	The Particularities and Traditional Traits in Manchurian-Korean literature	1940.01.17.
윤도혁	만주문학의 방향과 문학인의 태도	The Direction of Manchuria Literature and the Attitude of the Literati	1940.01.18.
윤도혁	명일의 문학사와 작품의 가치	Tomorrow's Literary History and the Value of a Work	1940.01.19.
김귀	농민문학의 방향으로	For the Direction of Peasant Literature	1940.01.20.
김귀	국민문학으로부터 세계에 진출토록	Passing from a Literature of National Citizens to the World	1940.01.22.
박영준	작가의 배출과 독자의 향상을 긴급동의(勸諭)	An Urgent Call for Writers' Training and the Improvement of Readers	1940.01.23.
박영준	현단계의 진실한 비평과 발표기관의 기대	The Reality of the Present State of Criticism and a Hope for the Mechanisms for Publishing	1940.01.24.
안수길	만주에도 일즈기 조선문학이 있었다	Manchuria had Korean Literature in the Past	1940.02.01.
안수길	간도중심의 조선문학 발전과정과 현단계	Kando as a Center for Korean Literatur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Present State	1940.02.02.
안수길	문단건설의 구체안과 문학인의 박력적 활동	Specific Answers to the Establishment of a Literary Stage and Activating the Literati	1940.02.03.
황금성	만주조선문학과 작가의 정열	Manchurian-Korean literature and the Enthusiasm of the Writer	1940.02.16-17.
이민구	문학이여, 현실로 도라가라	Literature, Please Take the Realism Road	1940.06.01-05.
박영준	만주 내 선계문학의 성격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1941.02.25-28.
고재기	在滿鮮系文學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1942.06. (『新滿洲』)

* 중문 간체자 제목은 崔一·吳敏 編, 『偽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 作品卷)』,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인과 비조선인 저자들이 '만주'라는 용어를 '만주국'의 약어로 사용하는 경

향이 있었다는 점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언어학적(philological) 관점에서 '만주'라는 용어의 불투명성은 만주국의 비-식민지배자 지성사에 대한 오랜 선입견에 도전한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주장하듯 '만주'라는 용어를 모호하게 유지함으로써 조선인 지식인들은 만주 지역에서의 과거를 만주국에서의 미래와 서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자신들의 사유를 펼칠 수 있었다. 본질적으로 『만선일보』 논설들은 조선문학의 오랜 현지성(localness)을 강조하는 동시에 근대 만주국을 건설하는 데 그것을 이용하려 했다.

김재용, 이해영, 김장선, 이복실 등 많은 연구자들은 당시 조선어로 글을 썼던 지식인들이 만주조선문학의 형성을 위해 활용한 방법과 그 목적 및 의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⁶⁾ 이들의 연구는 만주국 내 조선인 지식인들의 삶과 작품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 준다. 중국 학계와 일본 학계의 경우 전술한 연구자들의 작업이 갖는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고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반면, 영어권 학계에는 여전히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이어지는 논의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지점에서 차별화된다. 일본 제국주의가 비일본인 작가들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보다, 나는 만주국의 국민 형성(nation-building)⁷⁾ 담론을 생산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이 지식인들이 담당했던 역할과 그 의미에 주로 관심을 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신제의" 논설과 같은 글쓰기가 조선인 작가들의 행위성(agency)뿐 아니라 어떠한 책임감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작가들은 만주에서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자신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6) 몇 가지만 꼽자면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복실, 2018, 『만주국 조선인 연극』, 지식과교양: 김재용, 2012,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만주국' 조선인 문학」, 『문명의 충격과 근대 동아시아의 전환』, 경진출판; 이해영, 2015, 「위만주국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 172, 국어국문학회; 조은주, 2013,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등.

7) [역주] 'nation'은 대체로 '국민' 혹은 '국가'로 번역하되 맥락에 따라 일부 '민족'으로 번역한 구절도 있음을 밝혀 둔다. '민족'으로 번역한 경우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했다. 'nation-building'은 국민형성으로 옮기되 맥락에 따라 일부 '국민국가건설'로 번역했다. 이 경우에도 원어를 병기했다.

“신제의”의 저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1940년 만주의 사회 환경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신제의” 기획연재의 서언(序言)은 그들의 노력을 견인했던 태도와 문제의식을 잘 보여 준다.

이곳에 사는 우리 수효가 百萬을 넘으며 우리에게는 말이 있고, 글이 있스니 거기에 따라서 文學이 업슬 수 업다. 勿論 過去에도 이곳에서 朝鮮文化 方面의 各種 作品이 發表되지 안흔 것은 아니나 그는 너무도 散漫하였스며 너무도 區區不一하였든 것이다. 文壇的으로 그럴듯한 中心的 存在라는 것이 거의 업섯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리 둘 수는 업는가 한다. 오늘 부터라도 새 出發을 하여 두렷한 存在를 世上에 알리고 못 알리기는 全혀 우리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建設하고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거두지 안흐면 안 될 것은 새삼스리 느낀 우리는 느꼈스나마 이 問題를 가장 眞摯하게 檢討해 나가지 안흐면 안 될까 한다. 滿洲에 朝鮮文學을 建設하라면 어떤 方面, 어떤 用度에서 어떤 形式 어떤 手法 等等으로 着手하며 開拓해 나가야 될까. 여기에 對하여 滿洲 안에 계신 여러분의 意見을 綜合하여 文學人의 參考에 이바지하며 우리 文壇의 向할 바 길을 檢討해 볼까 한다.⁸⁾

이후 발표될 논설들 전반에 걸쳐 나타날 몇몇 주제가 이 진술에 이미 드러나 있다. 첫째, 서언의 우려 섞인 논조는 저자들이 만주에 존재했던 문학적 실천들에 대해 그리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신제의”의 저자들은 문학을 언어의 자연스러운 연장(延長)으로 보았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재현(self-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에 경사되어 있었음을 드러낸다. 셋째, 문학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지식인의 역할을 전제한다. 이는 곧 만주조선문학은 조선인 가운데 교육받은 자들을 동원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넷째, 이 서문은 만주 내 조선문학의 역사를 선형적 진보의 역사로 파악한다. 논설들은 작가들이 만주

8) 황건, 「만주조선인문학과 문학인의 신념」, 『만선일보』, 1940.01.12.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454頁.)

지역에서의 과거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문학이 전 세계에 알려질 밝은 미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만선일보』의 작가들은 만주조선문학의 윤곽을 그리는 일을 분명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만선일보』 논설들은 한반도 바깥에서 유통되었던바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지성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렌즈를 제공한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논설들이 현지화된(localized) 조선어 지식의 생산을 통해 만주국 국민과 그 문화를 구축하는 메커니즘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결국 『만선일보』는 괴뢰국가 만주국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등장했다. 이 글에서 나는 조선어 신문인 『만선일보』의 학예면을 분석함으로써, 만주국의 국민 형성 담론에서 조선인의 지적 사유가 담당했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지식인 동원, 그리고 언어와 문학의 연결

만주조선문학의 건설은 교육받은 엘리트들을 동원하는 일을 필요로 했다. 조선인 지식인들은 문학, 독서, 작문이 국민 주체를 정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에 있어 그들은 20세기 초 전 세계 지식인들, 특히 식민지 환경에 처해 있던 지식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예컨대 리디아 리우(Lydia Liu)는 자신의 연구서 『언어횡단적 실천(Translingual Practice)』에서 기존 연구들의 전제와 달리 루쉰(魯迅)을 비롯한 중국의 5·4운동 지식인들은 이미 존재하던 중국의 국민성을 그렸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국가 서사를 쓸 수 있는 기반이 될 새로운 주체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중국인 주체는 지식인들 자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즉 새로운 중국인 주체란 교육받은 자, 그리고 근대적 소통 방식인 문학과 관련해 주체성의 함양을 가능케 하는 발판으로서 인쇄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였던 것이다. 리우에 따르면, 국민성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문학적 근대성을 국가적 과제”로 활용하는 것을 정당화했으며, 많은 이들은 이를 경제, 군사, 과학, 기술 등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⁹⁾

독자층의 향상은 만주조선문학 건설이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독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이 사설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읽힐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어떻게 문학 작품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북돋울 것인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독자의 향상”이라는 관념은 주체성을 둘러싼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신제의”의 저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썼는가를 규명하는 일은 주목을 요한다. 독자들의 인식이 형성되어야 하는 이유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국민 형성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선인 독자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제의”의 저자들이 자신들을 반영하는 국민 주체를 만들기 위해 활용했던 많은 주장들 가운데 하나였다.

“신제의” 기획연재의 등장은 그 자체로 『만선일보』의 조선인 작가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는지를 보여 준다. 『만선일보』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조선인에 한정된 매우 협소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다. “신제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독자가 문해력을 갖춘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신문을, 특히 신문의 학예면을 읽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문에 글을 쓰는 바로 그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박영준의 말을 빌리자면, 만주조선문학 건설과 관련해 조선인 공동체가 직면했던 걸림들은 모두 “知識人の 다 가티 생각할 問題”¹⁰⁾였다.

만주국 내의 조선인 엘리트들은 그들이 보기에 근대적이고 문명화된 독서 실천을 옹호하고 지지했다. 무엇이 근대적이고 문명적인 것으로 여겨졌는지에 관한 주목할 만한 예시를 황금성(작가 김창걸(1911-1991)의 필명)이 쓴 「만주조선문학과 작가의 정열」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¹⁾ 황금성은 여자나 술집 같은 사소한 소재들만

9) Lydia H. Liu,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50. (리디아 리우, 『언어횡단적 실천』, 민경기 역, 소명출판, 2005, 101쪽, 번역 일부 수정—옮긴이)

10) 박영준, 「작가의 배출과 독자의 향상을 긴급동의」, 『만선일보』, 1940.01.23. (崔一·吳敏 編, 『偽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33頁.)

11) 황금성, 「만주조선문학과 작가의 정열」, 『만선일보』, 1940.02.16-17. (崔一·吳敏 編, 『偽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10-514頁.) 조선족 작가 김창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최일, 2015, 「김창걸 해방 후 소설에서 보이는 ‘국민(nation) 상상」,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김학면,

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개탄한다. “간혹 학예면을 펼쳤다가도 어떤 짜릿 짜릿한 러브씬이 나타나면 침을 삼키나 도시빈민층이나 농민의 생활 또는 인간 생활의 암흑면이 나올 때에는 ‘무어 쓸데없는 소릴’하고 핵 썰리”친다는 것이다.¹²⁾ 이어서 황금성은 상층계급 스스로 그러한 무시를 드러내 보일 때, “우리 문학 건설의 溫床인 만선일보의 존재조차 모”르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물며 기대도 할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¹³⁾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엘리트들에 대한 황금성의 질책의 기반에는 좌파적 이상이 놓여 있다. 황금성은 『만선일보』의 상층계급 독자들이 계급 불평등이나 다른 사회적 병폐보다 오락 따위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평가한다. 황금성은 하층계급을 향한 이러한 무관심이 만주 전역에 사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신문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다고 추론한다. 따라서 황금성은 만약 문해력을 갖춘 엘리트들이 프롤레타리아 문학 진흥에 힘쓰는 모범을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하층계급 내의 독자층도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간접적으로 주장한다.

모든 조선인 작가들이 프롤레타리아 사상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고도로 비판적인 독자층의 육성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문학 비평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박영준은 비평이 “滿洲文學의烽火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政治的手段을 가진” 작가의 필요성을 언급한다.¹⁴⁾ 박영준은 이렇게 쓴다. “滿洲文學의烽火가 될 評論이 必要하며 卽차 그는 참으로 滿洲文學을 이르고 사랑하려고 하는 가장 貴한 것이 되여지기를 願望한다.”¹⁵⁾ 박영준은 문학과 비평을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기까지 한다. “말하자면 批評과 作品은 夫婦 가티 한 家庭을 維持 發展시키려는 眞實한 態度를 가져야 할

2007, 「재만(在滿)작가 김창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파시즘」, 『한국현대문학연구』 22, 한국현대문학회.

12) 황금성, 「만주조선문학과 작가의 정열 (상)」, 『만선일보』, 1940.02.16.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11頁.)

13) 황금성, 1940, 위의 책.

14) 박영준, 「현단계의 진실한 비평과 발표기관의 기대」, 『만선일보』, 1940.01.24.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34頁.)

15) 박영준, 1940, 위의 책.

것이다. 어느 고장에서나 그런 것을 바랄 것이나 現段階에선 滿洲에서는 가장 切實히 要望하는 바가 될 게다.”¹⁶⁾ 마치 부부가 서로를 지탱해 주듯 문학 비평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을 검토하고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영준은 독자층을 고양시키는 것이 조선인 엘리트가 보다 통찰력 있는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박영준이 묘사한 부부 관계가 조선어로 된 문학과 비평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박영준은 어떻게 문학을 통해 만주를, 그리하여 기실 만주국을 재현/대표(represent)할 것인가에 관한 더 커다란 논의 안에 조선인 지식인들을 위치시켰다. 위에서 언급한 황금성의 좌파적 견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만주국 프로젝트의 하향식 문명화 과제와 달리, 황금성은 개혁되어야 할 것은 오히려 상층계급이라고 주장한다. 독자층의 고양을 위해서는 조선인 지식인들이 만주국이라는 더 큰 설계도 위에 자신들의 경험과 비판적 역량의 청사진을 덧입히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박영준과 황금성의 글은 하나의 국가(nation)로서 만주국의 주체적 측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문학을 통해] 얼마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시가 바로 다음과 같은 박영준의 진술이다.

滿洲에서의 우리 生活은 物質的 精神的 土臺가 구더져 간다. 그리하면 滿洲國民으로써의 精神的 마음도 기름지게 해야 할 것이라 맞는다. / 짤이야기 갖지만 滿洲의 朝鮮人도 이제는 손님 가튼 觀念을 업새하고 主人다운 行動을 가져야 하겠다. 여기에 朝鮮人 問題가 解決될 것이며 文化的 昂揚도 있을 것이다.¹⁷⁾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은유에는 깊은 함의가 담겨 있다. 근본적으로 조선인은 단순히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것 이상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했다.

16) 박영준, 1940, 위의 책.

17) 박영준, 1940, 위의 책.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35頁.)

그들은 거주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재현/대표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했으며, 박영준에게 이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보다 유동적인 교류와 관련되어 있었다. 문학의 목적은 과소평가될 수 없었다. 문학은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었으며, 그들은 만주국 시민이라는 관념을 공고화하기 위해 문학을 이용했다.

문학은 새로운 주체성을 널리 알리는 방식이 될 것이었다. 박영준은 작가의 육성을 긴급히 요청하는 또 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現在の 讀者層은 低級한 곳에서 踏歩하고 잇지 만나 생각 키운다. / 讀者의 高揚 問題는 文學의 發展과 더부러 할 길이지만 滿洲에는 讀者를 向上식힐 準備가 너무나 적은 것 같다.”¹⁸⁾ 여기에서 박영준이 '만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 용어의 의미를 지명을 넘어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박영준은 만주국 관영 매체의 국민 형성이라는 목표와 개인을 연결시키는 하향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계가 문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박영준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을 위한 만주조선문학 건설의 핵심 중 하나는 이 지리적 장소가 조선어의 피신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작가 이민구에게 압록강 건너편이라는 위치는 미래의 안전을 의미했다. “이제야 우리들의 한글 文學의 (...) 光輝 잇는 正統이 滿洲의 朝鮮語文學에 依야 繼承될 날이 갖갑게 되었다고 봄이 나의 망녕일가”라고 이민구는 쓴다.¹⁹⁾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문학 창작이야말로 만주국의 국가 문화를 창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담론적 공간 안에서 당시 작가들이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만주 내의 모든 조선인 작가들은 식민지 환경에서 언어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반도에서 조선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던 반면, 만주국에서는 민족협화 담론이 일본어 이외의

18) 박영준, 「작가의 배출과 독자의 향상을 긴급동의」,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33頁.)

19) 이민구, 「문학이여 현실로 도라가라 (3)」, 『만선일보』, 1940.06.04.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16頁.)

언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주장하듯 “언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상된 공동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역량, 즉 **특정한 결속**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다.”²⁰⁾ 『만선일보』의 작가들은 이 결속을 수행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조선어를 활용했다. 이 공간 안에서 조선어는 “동등한 이들의 형제애 속” 거의 “자율적인 공간”을 제공했다.²¹⁾ 이는 작가 고재기가 잡지 『신만주(新滿洲)』에서 새롭게 싹트고 있는 조선어 문단을 중국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조선어와 중국어 사이의 언어적 경계를 횡단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고에서 말하는 만주조선인문학(滿洲鮮系文學)은 만주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鮮系) 작가들이 조선어로 쓴 문학을 말한다. (...) 나는 만주조선인문학의 운명은 역시 재만 조선어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모토(母土) 조선의 언어 문제를 추이해 볼 때 부득불 이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나라(滿洲國)의 언어 문제는 만주문학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개 요소로 된다.²²⁾

고재기는 중국 독자들에게 현지 조선인 지식인들의 문학 활동에 대한 보존주의적(preservationist) 이해를 제공한다. 중국 독자들은 만주국의 미래에 있어 조선인의 정치적 지위가 중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고재기의 암시를 충분히 읽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고재기는 만주국의 다민족적 국민 형성 담론의 중심에 언어가 있다면, 같은 국가에 사는 거주민으로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조선인 저자들의 작품을 읽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고재기의 글은 다른 언어 집단에 속한 지식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정치적 유사성을 경유해 중국인

20)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n., New York: Verso, 2006, p.133, 강조-원저자. (베네딕트 앤더슨, 2018, 『상상된 공동체』, 서지원 역, 길, 202쪽, 번역 일부 수정-옮긴이.)

21) Ibid., p.84.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136쪽.)

22) “이 나라”라는 표현은 만주국을 의미하는 듯하다. 고재기가 만주문학의 건설에 대한 언급으로 이 문장을 끝맺고 있기 때문이다. 高在駟, 「在滿鮮系文學」, 『新滿洲』 4(6), 1942.6, 92쪽; 金長善, 『偽滿洲國時期朝鮮人文學與中國人文學比較研究』, 259頁에서 재인용. (고재기, 2009, 『재만선계문학』, 김장선, 『만주문학연구』, 역락, 103쪽, 휴어드의 논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원어를 삽입했다-옮긴이.)

독자와 조선인 독자를 수사적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은 만주국 국민 형성이라는 목표에 관한 문화획단적 지식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는데, 이는 '선계(鮮系)'라는 그의 표현에 집약되어 있다.

만주의 조선인 지식인들은 그 지역의 문단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논할 수 있는 표현 양식을 고안하고자 했다. 고재기와 같은 작가들은 만주에 거주하는 각 민족 집단의 문학을 묘사할 때 당시 일본의 선전 자료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설명적(descriptive) 접미사 '계(系)'를 활용했다. 마리코 아사노 타마노이(Mariko Asano Tamanoi)에 따르면, '계'는 '계통의(of descent)' 혹은 '혈통의(of blood)'로 번역되는바 어느 집단에든 무한히 붙일 수 있는 접미사였다.²³⁾ 또한 타마노이는 한족(漢族)에게는 '계'가 부착되지 않았기에 만계(滿系)는 언제나 한족과 만주족을 포함하는 단어였으며, "가장 큰 인구 집단과 '일본인' 사이의 극명한 권력 차이를 암시하는 편리한 단어"였다고 지적한다.²⁴⁾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이 중국인 공동체를 가리키기 위해 특히 중국어 잡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과 동등한 사회적 조건에 놓이기 위한 조선인들의 투쟁을 환기시킨다.

만주국의 인구를 분류할 때 외에도, 접미사 '계'는 다양한 언어 집단의 문학에도 흔히 부착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계'는 일본문학(日系文學), 중국어문학(滿系文學), 조선문학(鮮系文學)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²⁵⁾ 러시아문학(俄系文學)과 몽골문학(蒙系文學)을 지시할 때도 사용되긴 했지만, 이러한 사례는 훨씬 적었다. 만주어로 된 문학은 만계문학에 포함되었다.

『만선일보』 논설들은 조선인 지식인들이 '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만주조선문학(재만선계문학)'이라는 수사를 구축하려 했던 흐름을 보여 준다. 이 접미사는 만

23) Mariko Asano Tamanoi. 2000. "Knowledge, Power, and Racial Classification: The 'Japanese' in 'Manchuri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 no. 2, p.257.

24) Ibid. 타마노이는 '일본인'에 따옴표를 치고 있는데, 이는 소위 일계(日系) 인구가 미국이나 하와이 출신의 많은 일본계 이민자뿐 아니라, 일본에서 온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이민자들을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25) '만계'는 만주국인(滿洲國人)의 파생어이다. 즉 만주족 작가들이 만주 지역 선주민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만계가 만주족 작가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주 지역의 저술들을 일본, 조선, 중국 본토의 저술들과 구별해 주었다. 일본인 작가가 사용했을 경우, ‘계’는 주로 만주국의 오족(五族) 위계를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중국인 작가들은 이 접미사를 그리 잘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들을 가리킬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인 작가들은 다섯 번째 공식 민족으로서의 위태로운 지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주인의식을 선언하기 위해 ‘계’를 활용했다.

고재기는 국민 형성 기획에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오족협화 담론을 실행으로 옮겼다. 이는 만주를 재현/대표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중국인 작가들에게 지역의 조선인 작가들이 그러한 노력에 있어 동맹이라는 점을 호소하는 형태를 취했다. 만주국의 오족협화 담론에 동조하는 듯 행세함으로써 고재기는 조선문학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의 시도는 만주와 조선어 사이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유대를 강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고재기는 자신의 글을 읽을 중국인 독자들만큼이나 조선인 지식인들 또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만주의 대표자/대변자(representative)라고 주장했다. “신제의” 사설들에서 언어의 활용은 지식인으로서 작가의 역량과 더불어 조선문학에 대한 작가의 견해가 어떻게 만주에서 중요한 것으로 부상했는지를 보여 준다. 문학을 통해 만주를 재현/대표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지식인들은 만주 지역이 명목상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도 독립된 곳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글쓰기를 통해 어떠한 주체성을 묘사했는데, 이는 만주 지역의 환경과 결합될 때 국민성을 띤 공간을 구축하는 기능을 했다.

Ⅲ. 만주 내의 문학사 서술과 그 미래

논설의 저자들은 모두 만주조선문학의 낙후성에 동의했다. “신제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불만은 사소하고 소박한 주제, 진지한 작가의 부족, 현실성이 떨어지는 묘사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한 문학계의 필수 요

소인 문학 비평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문학 생산의 다변화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가능해진다. 작가들의 사유에서부터 그 결과물의 양상, 작가들이 사용하는 문학적 장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플랫폼, 작가의 글을 읽을 독자들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다.

“신제의”가 발표될 무렵, 만주 내의 조선인 작가들은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반도 내의 작가들과 자신들을 구별 지을 필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많은 조선인 작가들은 만주 내에 존재하는 문학 생산의 위계적 질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제의”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불안정성을 하나의 긴급한 문제로 이야기했다. 그들은 만주 및 그 너머의 다른 작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선일보』 기자였던 윤도혁은 만주 지역의 다양한 문단을 상이한 발전 수준에 따라 계층화했다.

朝鮮文學(新文學)의 過去 歷史性과 現在에 있는 段階로 비추어 그것을 나는 五期로 分하여 본다. / 卽 胚胎期 草創期 啓蒙期 成長期 發展期라고 設定하여 노코²⁶⁾ 이것을 日本 內地²⁷⁾ 文學(東京文壇)을 發展期 朝鮮 內 文學을 成長期 이를 滿洲 內 各民族의 文學的 段階에 設定하여 日系文學이 成長期 滿洲人文學(滿系)이 啓蒙期 그리고 朝鮮文學이 草創期라고 보아 疑心이 업을 것이다.²⁸⁾ (괄호-원저자)

이 인용문의 전반부에서 윤도혁은 동아시아 전역의 문학을 논하기 위한 틀로 조선의 문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그는 일본 본토와 한반도, 그리고 만주 사이의 상이한 문학적 기준과 관습 들을 분명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윤도혁이 “朝鮮文學(新文學)”이라고 언급할 때, 이는 1900년대 초 이광수에 의해 시작된 근대문학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때 윤도혁이 다섯 단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국보다

26) 윤도혁, 「명일의 문학사와 작품의 가치」, 『만선일보』, 1940.01.19.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463頁.) “배태기(胚胎期)”라는 구절은 원본의 인쇄가 불분명해 중국어 번역본에서 가져온 것이다.

27) “내지(內地)”는 재만 조선인 작가들이 일본 본토와 한반도를 가리키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28) 흥미롭게도 윤도혁은 만주국의 “다섯” 인종 가운데 세 인종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먼저 근대문학이 형성되었던 일본 본토의 작품에 적용하는 것은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에 대한 하나의 도발적인 전복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東京文壇”이 “朝鮮文學(新文學)”보다 더 높은 발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윤도혁이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그가 반도를 기준으로 만주 지역의 문학적 실천들 전반을 평가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다.

조선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문학적 위계를 다시 측량함으로써 윤도혁은 인용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문학적 표준에 대한 두 번째 수정을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윤도혁은 동일한 다섯 단계에 의거할 뿐 아니라 민족성(ethnicity)과도 관련지어 만주 지역의 문학 실천을 범주화한다. 윤도혁은 만주 내의 조선문학이 수준 이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조선문학을 다른 언어로 된 만주 지역의 문학들과 비교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이를 통해 윤도혁은 만주를 스스로를 대표하는 문학을 가질 자격이 있는 독립체(entity)로 만든다. 윤도혁과 동료들은 일본이나 조선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창작 활동을 주변적인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만주에서 조선어 글쓰기가 중심적인 것이 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기도 했다.

조선인 작가들이 ‘만주의(of Manchuria) 조선문학’을 규정하고 생산하기를 열망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오지(輿地)라는 이미지를 벗고 문화적 상상 속에서 훨씬 음흉한 무언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달리 말해, 만주국이 일종의 국민국가(nation-state)처럼 기능하면서 만주를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황건은 「만주조선인문학의 특수성」에서 만주 내의 조선문학은 전체 조선어 문단의 한 “지방적 역할”이나 단순한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滿洲朝鮮人文學이란 (...) 滿洲에 와 잇는 滿洲國 鮮系國民 (...) 만 이를 수 잇는 文學”이라고 말한다.²⁹⁾ 이 인용문에 나오는 황건의 표현은 상당히 독특하다.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대부분의 작가들은 ‘만주국’에서 ‘국’을 생략했는데, 아마도 이는 검열의 주의를 흠뜨려 놓으려는 목적에서 ‘만주’ 자체가

29) 황건, 「만주조선인문학의 특수성」, 『만선일보』, 1940.01.13.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25頁.)

만주 지역과 만주국 모두를 의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황건의 표현은 정치적 발언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나는 이를 장소 개념에 대한 지식 생산의 우연성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으로 바라보려 한다.

1931년 만주국의 설립은 지적 상상 속에서 사회공간적(socio-spatial) 고정물로 존재하던 만주의 기존 의미를 붕괴시켰다.³⁰⁾ 논설들에서 전달되는 지식은 만주 지역 조선문학의 행위성과 주인의식을 동반하지만, 이는 동시에 소위 '만주국문학'을 창조하는 데 이용되었던 더 큰 논의 및 사유와 분리될 수 없다. '만주' 대 '만주국' 사이의 표현의 모호성은 만주를 조선인 지식인들이 생산하는 자기지식(self-knowledge)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작가들에게 하나의 장소로서 만주와 그곳에서 펼쳐지는 삶의 방식들에 대한 묘사는 모두 그들이 구상하는 문학을 위한 이상적인 주제가 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만주국은 만주로 채워진 내용들이 문화 횡단적 담론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 만주에서 조선인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은 만주국에 의해 존재할 수 있었던 다양한 독자들, 작가들, 그리고 출판물들과 관련해 자신의 글의 생산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했다.

논설의 저자가 비조선인이 주도하는 지적 담론을 언급하는 경우는 특히 유의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제의" 기획연재가 종료된 후 발표된 「만주 내 선계문학의 성격」에서 박영준은 중국어 잡지 『예문지(藝文志)』와 창간자 구딩(古丁, 1914-1964)³¹⁾의 '사인주의(寫印主義)'³²⁾ 태도에 관해 이야기한다. 구딩과 마찬가지로 박영준은

30) 앙드레 슈미드는 만주국 개념이 한반도 지식인들의 사회공간적 상상력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매우 유려하게 설명한 바 있다.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참조(앙드레 슈미드,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이러한 변화를 직면했던 만주 지역 조선인 공동체의 혼란상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은 Hyun Ok Park, 2005, *Two Dreams in One Bed: Empire, Social Life, and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참조.

31) 작가 구딩의 본명은 쉬창지(徐長吉)로 1914년 장춘에서 태어났다. 그는 소설 「원야(原野)」와 「분비(奮飛)」의 작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구딩과 그의 작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劉曉麗, 2017, 『古丁作品集』 第二卷,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李春燕 編, 1995, 『古丁作品選』, 遼寧: 春風文藝出版社.

32) [역주] 원문은 '寫與印'으로 되어 있다. 사인주의(寫印主義)는 "일제 침략으로 침체된 당시 만주국의 문학 현실을 창작[寫]과 발표[印] 공간의 확보로 돌파"해야 한다고, 즉 "무엇보다 먼저 작품을 많이 창작,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문, 2009, 「일제 침략 시기 만주 지역 중국

조선인 작가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작품을 자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저 作家에게 그가 올타는 作品을 될 수 있는 대로 發表식히도록 努力하는 것이 急先務일 것이다. / 滿系文學界에 잇서서 『藝文志』를 發刊할 때의 主目가 評論이나 論文을 避하고 作品에 注力 (...) 하겠다고 한 것은 正當한 意見이엇다고 생각한다.”³³⁾ 구덩에 대항하기 위해 또 다른 중국 지식인 집단은 향토에 관한 사실적인 글쓰기를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향토 이데올로기는 조선인 작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이민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滿洲는 文學이 나기에는 너무나 豐饒한 곳이다. 마치 作家에게는 獵銃을 가진 捕手가 密林에 드러선 것 가티 對像이 많은 곳이다. 實로 偉大한 文學 文學의 偉大를 노키에는 알마즌 溫床이 아닌가.³⁴⁾

이민구는 조선어 독자들을 위해 이 글을 썼겠지만, 그의 생각은 과거의 민족적 감수성을 넘어서고 있다. 그의 관심사는 만주의 풍요를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만주가 제공했던 장소에 놓여 있다. “풍요”한 대지와 사냥을 위한 “밀림”이라는 이민구의 언급에 묘사된 바와 같이, 문학은 전적으로 지역의 자원에 의존하는 삶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인유(引喩)는 만주 지역의 자연환경이 그 자체로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이 서로의 글을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생산한 자기지식의 원천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러한 은유에 내재된 욕망과 폭력성은 이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청나라의) 제국주의적 충동에 비견될 수 있다.

“신제의”의 저자들은 스스로를 그 땅의 대표자/대변자라고 생각했다. 만주조선

친일문학의 논리구조: 왕도낙토론(王道樂土論)과 오족협화론(五族協和論)을 중심으로(1931-1945), 『중국현대문학』 50,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7-208쪽; 김장선, 2009, 『만주문학연구』, 역락, 185쪽.

33) 박영준, 「만주 내 조선문학의 성격」, 『만선일보』, 1941.02.25.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19-520頁.)

34) 이민구, 「문학이여 현실로 도라가라 (1)」, 『만선일보』, 1940.06.01.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15頁.)

문학 건설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만주를 반영하는 문학적 관행의 발전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만주에 대한 묘사란 필연적으로 만주국에 대한 생생하고 자세한 묘사로도 귀결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조선인 작가들은 자신들의 관점이 중국인 작가들과 상이한 사회경제적 요소에 의해 형성되긴 했지만, 자신들이 하는 문학의 가치가 하나의 장소로서 만주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만주'라는 용어의 모호한 사용은 나름대로 타당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조선인 지식인들은 (중국인 및 일본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 산물을 타자들(Others)의 문화 산물과 구별 짓기 위한 수단으로 문학을 활용했다. 동시에 만주국 지식인들은 국가의 역사를 창조하는 데 이용되는 집단적 주체성 형성을 위한 매개로 문학을 사용했다.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만선일보』의 작가들은 조선문학이 만주의 미래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식인의 동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문학과 문학사가 왜 국민/민족(nation) 형성에 필수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과 앙드레 슈미드(Andre Schmid)는 『민족 작업: 아시아 엘리트와 민족 정체성(Nation Work: Asian Elites and National Identities)』에서, 아시아의 전통적인 민족(nation) 형성 담론을 서양을 마주친 동양의 반응이자 반성(reflection)으로 파악했다. 그들은 이 과정을 “아시아 민족들(nations) 내부의 균열”로 묘사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1) 젠더, 계급, 지역, 이데올로기로 인한 당파 갈등; (2) 초문화적 상호작용을 수반해 민족 정체성을 다른 외부의 민족들과 구별 짓는 과정; (3) 현재의 목적을 위한 과거의 재맥락화, 다른 말로 “역사화 작업” 등이 그것이다.³⁵⁾ 문학은 이 세 번째 양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프라센지트 두아라(Prasenjit Duara) 역시 “시간상의 경험”은 문학, 신화학, 의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상이한 서사적·비서사적 형태를 통해 기록된

35) Timothy Brook and Andre Schmid, 2010, *Nation Work: Asian Elites and National Identit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3-5.

다”고 주장한다.³⁶⁾ 문학과 같은 새로운 글쓰기 형식들을 통해 과거를 재해석함으로써, “역사는 민족[nation]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³⁷⁾ 만주 지역의 조선문학사는 중국 및 일본 작가/작품과의 동등한 발전 가능성을 전제하는 선형적 시간 안에 조선의 작가/작품을 배치하는바, 만주조선문학 건설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신제의” 논설들은 만주 내의 조선문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쓴다. 재만조선인 연구자들이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작품들의 작가인 안수길(1911-1977)은 이 사건들의 연대기를 기록한 바 있다.³⁸⁾ 안수길은 “신제의” 기획연재에 연달아 세 편의 글을 실었다. 이 글들에서 그는 만주 내의 조선문학이 이주민의 산물로 시작해 새롭게 싹트고 있는 만주국 문화의 한 축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안수길의 주장은 국가의 수립과 관련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논설들과 차이를 보인다.

滿洲는 建設의 나라다. 그럼으로 建設期의 特徵으로 文化 方面보다 經濟나 政治에 致力하는 것은 不得已한 일이다. 이것은 朝鮮人 社會에 있어서 尤甚하여 (...) 文化 方面 特히 文學徒에 對하여는 異端視하는 傾向이 있어서 이것이 文學 發展에 至大한 影響을 준다고 보는데 文學의 必要性 등을 機會 있는 대로 社會에 對하여 認識시키어야 될 줄 알며 先輩 大家들은 作品 活動에도 참가하여 後輩들을 積極的으로 指導하여야 될 줄 안다.³⁹⁾ (강조-인용자)

36) Prasenjit Duara, 1995,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on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9. (프라젠지트 두아라, 2004,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문명기·손승희 역, 삼인, 46쪽.)

37) Brook and Schmid, *Nation Work*, p.5.

38) 안수길은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하는 함경남도에서 태어났다. 1923년 가족과 함께 간도 용정으로 이주했다. 와세다대학 고등사범부 영문과에서 수학했다. 만주로 돌아온 뒤 1935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1948년 남한으로 이주했고, 1977년 사망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글을 썼다. 만주연구와 관련해 안수길을 살펴보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을 참조. 李海英·金在湧編., 2016, 「安壽吉解放前後‘滿洲’叙事中の民族認識：以與其他民族的關係爲中心」, 『記憶與再現』, 上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82-101頁.

39) 안수길, 「문단건설의 구체안과 문학인의 박력적 활동」, 『만선일보』, 1940.02.03.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14頁.)

의미심장하게도 안수길은 만주국에서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가진 국가의 잠재성을 읽어 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만주국의 국민국가건설(nation-building) 노력 과정에서 더 눈에 띄는 징후는 문화 활동의 배제(dispossession)라고 주장한다. 안수길은 문학이 정치적 술수(conjuring)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며 오히려 사회 자체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 담론 생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선인 작가들이 나아갈 길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안수길에 따르면, 문학은 현재를 과거 및 미래와 연결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며, 따라서 그는 윗세대, 즉 자신과 같은 현지의 문학적 선배들에게 호소한다.

안수길은 “신제의” 기획연재에 실은 첫 번째 글의 제목을 통해 “만주에도 일지기 조선문학이 있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글은 만주 내의(in) 조선문학과 만주의(of) 조선문학이 서로 다르다는 관념을 노정한다. 안수길은 기획연재의 제목을 바꾸어 말함으로써 만주 지역 문학사의 시간적 구분을 통합하려 시도한다. “신제의”가 만주조선문학 “건설(建設)”을 추구하는 지점에서, 안수길은 만주조선문학 “재건(再建)”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⁴⁰⁾

안수길은 1933년 만주 내 최초의 조선어 문예지인 『북향』을 창간한 장본인이다.⁴¹⁾ 이를 염두에 두면, 만주 지역 조선인 공동체에게는 기존의 문학적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많은 『만선일보』 저자들의 말은 안수길에게 모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당혹스럽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안수길은 자신보다 먼저 “신제의”에 글을 실은 저자들을 칭찬하면서, 이러한 무시들에 점잖게 대응한다. 즉 그는 각각 만주조선문학의 특성을 규명하고 작가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했던 황건과 윤도혁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어서 안수길은 직접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시작한다.

40) 안수길, 「만주에도 일지기 조선문학이 있겠다」, 『만선일보』, 1940.02.01.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35-536頁.)

41) 안수길은 다른 다섯 명의 작가와 함께 1933년 11월에 ‘북향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1935년 10월부터 잡지 『북향』을 간행하기 시작했다. 총 제4호까지 발행되었다. 『북향』의 이념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李海英·金在湧, 2000, 「安壽吉解放前후 滿洲」叙事中的民族認識; 張春植, 「安壽吉与他的‘北郷’情結」, 『当代韓國』 第二期, 87-94頁.

滿洲朝鮮文學의 再建에 있어서 나도 한 개의 兵卒로서 犬馬의 役을 질 수 있다면 幸으로 생각하겠고 平素의 所懷를 述하여 文學 建設이란 大業에 他山の 石이 된다면 이 또한 우에 얽는 기쁨이겠다.⁴²⁾ (강조-인용자)

안수길의 절제된 어조는 조선인 작가들 사이의 관계와 긴장을 잘 드러내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해, “신제의”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관점들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고, 이는 분명 표면적으로 조선문학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안수길은 이 분야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애매한 태도를 내려놓고 안수길을 논설들의 핵심 주장을 반박한다.

나는 이 우에 特히 ‘滿洲朝鮮文學의 再建’이라는 말을 썼고 거기에 傍點까지 찍었다. 滿洲에는 朝鮮文學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疲弊하여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것을 다시 이르켜 세우자. 이것이 再建이다. 어찌케 이르켜 세우겠느냐? (...) 滿洲 朝鮮文學이 發生하여 今日까지 걸어온 자취를 살펴보기로 하겠다.⁴³⁾

계속해서 안수길은 만주, 특히 접경 지역인 간도로 이주해 온 조선인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대부분 용정에서 간행되었던 초기 조선어 신문들의 목록을 열거한다. 안수길의 두 번째 글인 「간도 중심의 조선문학 발전 과정과 현단계」는 북향회의 결성과 활동, 그리고 해산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다.⁴⁴⁾ 안수길은 자랑을 하기보다, 독자들에게 만주조선문학이 이미 얼마나 굳건한 토대-안수길 자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기시킨다.

만주 지역 조선인 지식인의 활동의 역사에 관한 설명은 미래의 문학 전통을

42) 안수길, 「만주에도 일즈기 조선문학이 있섰다」.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35-536頁.)

43) 안수길, 1940, 위의 책.

44) 안수길, 「간도중심의 조선문학 발전과정과 현단계」, 『만선일보』, 1940.02.02.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38-540頁.) 안수길의 서술은 전술했던 1942년 중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고재기가 『신민주』에 발표한 글과도 관련되어 있다. 조선족 학자 최일이 안수길과 고재기에 대한 김장선의 연구를 중국어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여기에는 흥미로운 동시대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金長善, 『僞滿洲國時期朝鮮人文學與中國人文學比較研究』 참조.

창조하는 데 있어 과거를 기억하는 일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신제의”의 저자들은 문학이 만주에서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그들은 만주 지역에서의 삶과 한반도의 문학 전통을 조화시키는 지점에서, 특히 양쪽 모두의 식민지적 억압 앞에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만주 지역 문학과 반도 문학을 분리하는 것은 이 작가들이 스스로 건설하고 있다고 믿는 미래에 반도의 역사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공백을 발생시켰다. 황건의 글은 만주에서의 삶이란 고향을 떠난 조상들의 고통을 통해 가능했던 것임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우리 滿洲朝鮮人 文學도 故郷의 概念을 떠나서는 到底히 생각할 수 업을 것이다. (….) 朝鮮文壇이 가지고 있는 傳統(잘버도 傳統은 傳統이다)과의 聯結을 忘却하여서는 到底히 그 成長을 생각할 수 업는 것이다. 이 傳統과의 聯結을 잘하는 同時에 우리는 이 傳統에서 또한 잘 分離하여써 成長치 안으면 안 될 것이다.⁴⁵⁾

황건의 “망각” 개념이 단순한 기억의 기능 부전이라기보다 문화적 기억상실(амnesia)의 유도를 의미한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황건은 반도에서 만주로의 이주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만주 지역 조선인들의 글쓰기에서 불가해할 정도로 부재하다고 말한다. 황건은 조선인이 힘들게 획득한 안정을 지적함으로써(박영준이 주인/손님 은유를 통해 행했던 것과 같은) 이러한 누락을 설명한다. 그는 문학은 개인적 경험에 기반해야 하기에 ‘망각의 전통’은 문제적이라고 주장한다. 만주에서 조선인의 물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억상실은 문학적 연속성의 감각을 방해해 왔다.

앤 스톨러(Ann Stoler)는 프랑스의 식민주의 역사와 현대 프랑스 사이의 “신중한 분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억상실과 대조되는 “실어증(aphasia)” 개념을 제시했다.⁴⁶⁾ 그는 실어증을 “앞의 차단”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접근의 상실과 적극적인

45) 황건, 「만주조선인문학의 특수성」, (崔一·吳敏 編, 『偽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25頁.)

46) 실어증은 만주국의 문학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만주국을

분리 모두”를 수반한다.⁴⁷⁾ 계속해서 스톨러는 이렇게 주장한다. “실어증은 단절(dismembering), 말하는 것의 어려움, 적절한 사물과 적절한 개념 및 표현을 서로 연결하는 단어를 만드는 것의 어려움이다.”⁴⁸⁾ 실어증의 측면에서 이해했을 때, 『만선일보』 논설들에 등장하는 ‘만주’의 모호한 용법은 모든 것을 장악하는 담론들을 가진 억압적 체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만주 지역 조선인 작가들이 이주의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고, 이 경험을 그들이 동참하려 분투하는 근대성과 서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제의” 기획연재는 작가들이 만주조선문학에 붙어넣고자 했던 자기성찰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작가들은 만주 내에서의 그들의 시간성을 고찰하고 묘사하는 동시에,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가들은 조선인 공동체를 시대를 초월한 만주 지역의 특징으로 묘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엘리트의 동원이 새로운 주체를 특징짓는 것을 의미한다면, 과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주체성을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신제의” 논설들, 특히 안수길이 쓴 세 편의 글은 만주 지역 내 조선문학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작가들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실천이었음을 보여 준다.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식민지적 실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지막 글에서 안수길은 만주 지역 조선문학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지도 원리의 확립이다. “신제의” 논설들과 이후에 발표된 유사한 주제의 글들이 이러한 목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안수길은 조선인 작가들이 만주 전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발표 기관들, 특히 지역 문예지들이 등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같은 이념을 공유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같은 사회적 지위에 속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도들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셋째, 『만선일보』의 활발한 활

기억하는 동시에 망각하려 했던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언어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47) Ann Laura Stoler, 2011, “Colonial Aphasia: Race and Disabled Histories in France,” *Public Culture* 23, no. 1, p.125.

48) Ibid.

약이 요구된다. 넷째, 안수길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공부하도록, 또 더 풍부한 삶을 살도록 격려한다. 그는 작가들에게 조선문단이나 일본문단을 넘어 세계 무대에 진출할 꿈을 꾸라고 충고한다. 마지막 다섯째, 안수길은 문학에 대한 사회의 인정과 선배 문인들의 활동을 촉구한다.⁴⁹⁾

이 다섯 가지 목표로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안수길은 자신의 만주 지역 조선문학사 서술을 공고화한다. 미래의 만주조선문학은 그 뿌리를 안수길을 필두로 한 북향회로 인식할 것이었다. 또한 만주조선문학의 발전 과정은 『북향』의 발전 과정을 반영할 것이었다. 지역 네트워크들은 조선문학의 보급을 위한 중심 플랫폼으로서 『만선일보』와 손잡게 될 것이었다. 이에 따라 『만선일보』의 학예면도 풍요로워질 것이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 모든 희망은 작가들의 성과와 문학 생산에 대한 사회의 시선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세계 무대 진출이라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제의”의 작가들이 만주 그리고/또는 만주국의 대변자로서 조선인 지식인의 가치와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IV. 결론

어떻게 만주의 사회적·문화적 지형에 조선문학을 튼튼히 뿌리내릴 것인가를 둘러싼 조선인 지식인들 사이의 토론은 네 가지 목표를 도출했다. 첫째, 독자층과 소통망의 확대를 위해 지식인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둘째, 조선어를 보존하기 위해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문학에 더 높은 문화적 가치를 두는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 셋째, 이것이 핵심인데, 스스로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조선인 작가들이 문학 적 실천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했다. 넷째, 조선문학의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또 자신들의 문화와 거주지의 대표자/대변자로서 지식인의 역할을 상상하기 위해, 조선인 지식인들이 조선문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파해야 했다. 결국 문학은 새

49) 안수길, 「문단건설의 구체안과 문학인의 박력적 활동」, 『만선일보』, 1940.02.03. (崔一·吳敏 編,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540-543頁.)

로운 주체성을 형성하고 전달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으로 기능했다.

“신제의”의 작가들은 만주조선문학이 한반도나 일본 본토의 작품과 비교할 때 뿐 아니라 만주국 내의 중국문학이나 일본문학과 비교할 때도 낙후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그들은 만주 지역 조선 문학이 만주 경험의 중심이자, 오족협화라는 만주국 신념의 고유한 한 측면이라고 보았다. 만주조선문학을 유력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받은 엘리트들은 만주에서의 조선인의 삶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잘 쓰고, 더 많이 생산해야 했다. 목표는 정치적 지위와 무관하게 세계 수준의 문학 전통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만주조선문학 건설이라는 맥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독자층의 향상이었다. 지식인의 동원은 문학 작품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독자층을 양성하기 위한 핵심이었다. 문학 작품의 주제는 근대성과 문명화에 대한 조선인 지식인들의 사유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몇몇 작가들에게 이는 계급의식의 옹호와 프롤레타리아의 묘사를 의미했는데, 이들이 만주에서 가장 큰 계급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식인들은 만주에서의 일상을 묘사하는 데 활용되는 서술 기법과 그것이 갖는 더 큰 중요성에 대해 논하는 강력한 문학 비평에 보다 관심을 가졌다. “신제의” 사설들은 작가들이 문학을 새로운 주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매개로 파악했음을 보여 준다. 1940년대 아시아 전역에 편재했던 국민/민족(nation) 형성 메커니즘을 상기하면서, 조선인 지식인들은 문학을 활용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자신들이 만주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혹은 일본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고 현지화된 문화 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20세기 초 아시아 전역에서 실행된 것과 같은 국민/민족(nation) 형성 메커니즘은 지역적 특성을, 또 해당될 경우 국가적 특성을 전시하기 위한 주된 창구로서 문학을 활성화했다. 리디아 리우는 우리에게 동아시아의 근대문학은 “국민[nationhood]이라는 관념이 증대하게 나타나던 상호경쟁적인 의미들의 역사 속에 처음부터 깊이 뿌리박고 있었”음을 상기시킨다.⁵⁰⁾ 만주의 경우, 국가적 관념이 지역적 경관

50) Liu, *Translingual Practice*, p.82. (리디아 리우, 『언어횡단적 실천』, 152쪽, 번역 일부 수정—옮긴이.)

위에 부과되어 있었다. 그 결과 만주에 거주하던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그 장소의 대표자/대변자로 위치시켰다. 필연적으로 그들 역시 문학 같은 국민 형성 메커니즘을 활용해 자신들의 문화생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가치를 창조했다.

『만선일보』 작가들은 조선문학사를 만주국 국민 형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식인들을 동원했다. 조선인 작가들은 만주 내의 조선 근대문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썼다. 안수길은 문화 활동의 배제는 만주국 국민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한 징후이며, 따라서 여기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주조선문학을 처음부터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되는 흐름을 상쇄시켰다. 만주 지역 조선문학사 서술은 만주국과 한반도의 정치적 거리를 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을 채워 넣었다. 역사는 또한 만주국 건립이 야기했던 문화적 기억상실 그리고 /또는 실어증에 대응했다. 문학 활동의 현지화(localizing)는 조선인 지식인들로 하여금 조선인의 삶을 시대를 초월해 만주가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특징으로 묘사할 수 있게 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崔一·吳敏 編, 2017, 『偽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 作品卷)』,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 金長善, 2017, 『偽滿洲國時期朝鮮人文學與中國人文學比較研究(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 研究卷)』,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 李春燕 編, 1995, 『古丁作品選』, 遼寧: 春風文藝出版社
- 劉曉麗, 2017, 『古丁作品集』 第二卷,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 연구문헌

- 김장선, 2009, 『만주문학연구』, 역락
- 김재용, 2012,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만주국' 조선인 문학」, 『문명의 충격과 근대 동아시아의 전환』, 경진출판
- 김학면, 2007, 「재만(在滿)작가 김창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파시즘」, 『한국현대문학연구』 22, 한국현대문학회
- 이복실, 2018, 『만주국 조선인 연극』, 지식과교양
- 이해영, 2015, 「偽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 172, 국어국문학회
- 이해영·임몽, 2013, 「만주국 '鮮계' 문학 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 40, 한국현대문학회
- 조은주, 2013,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신경,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최일, 2015, 「김창걸 해방 후 소설에서 보이는 '국민(nation) 상상」,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 李海英·金在湧 編, 2016, 「安壽吉解放前後'滿洲' 敘事中的民族認識: 以與其他民族的關係爲中心」, 『記憶與再現』, 上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 張春植, 2000, 「安壽吉與他的'北鄉'情結」, 『當代韓國』 第二期
- Anderson, Benedict.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n. London: Verso
- Brook, Timothy, and Andre Schmid. 2010, *Nation Work: Asian Elites and National Identit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uara, Prasenjit. 1995,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on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ara, Prasenjit. 2004,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Elliott, Mark C. 2000,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 no. 3, 603-646
- Liu, Lydia H. 1995,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 China, 1900-193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k, Hyun Ok. 2005, *Two Dreams in One Bed: Empire, Social Life, and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Schmid, Andre.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toler, Ann Laura. 2011, "Colonial Aphasia: Race and Disabled Histories in France." *Public Culture* 23, no. 1, 121-156
- Tamanoi, Mariko Asano. 2000, "Knowledge, Power, and Racial Classification: The 'Japanese' in 'Manchuri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 no. 2, 248-276

■ Abstract ■

Writing “Manchurian-Korean Literature”
in the *Manseon ilbo*, 1937-1942

Lehyla G. Heward (University of Malta)

This paper examines the intellectual discourse regarding the place and function of Korean-language writing in Manchuria during the Manchukuo period. I look specifically at several editorials that appeared in the Korean newspaper *Manseon ilbo*. These primary sources appeared during the literary zenith of the Manchukuo period between 1937 and 1942, five years mainly characterized by widespread debates about what constituted Manchukuo national culture. I argue that the participation of Korean intellectuals in these debates indicates their desire to be seen as an autonomous group disassociated with the Japanese. The fact that some of the subsequent writing appeared in Chinese translation suggests that it was important for Chinese people as well to see Koreans in a new light. The newspaper articles discussed below show a propensity to change perceptions about Korean belonging in Manchuria through literature and intellectual production. From another perspective, the *Manseon ilbo* articles shed light on how Korean intellectuals understood their production value vis-à-vis the nation-building discourses of Manchukuo.

Key words: *Manseon ilbo*, Manchurian-Korean literature, Manchukuo, nation-building, Korean intellectuals